

# 재한일본인의 논픽션 작품에서 보는 한국 생활

## -민주화 이전부터 한류 전까지-

이마사토 하지메 (리쓰메이칸대학)

### 1. 들어가며

본 발표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8년 서울 올림픽 전의 시대의 재한일본인의 생활을 다룬 논픽션 작품을 대상으로 재한일본인<sup>1)</sup>들의 생활이나 한국인과의 소통의 특징을 정리한다. 이를 통하여 한류 붐 이후에 재한일본인들의 한국관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이 시기의 그들의 한국에서의 한국인들과의 접촉·교류를 통한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1993)에서 동양 문화나 풍속에 대한 유럽인들의 후진적, 종속적인 시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발표에서도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사이드의 논의를 원용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내한한 재한일본 출신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재일코리안의 모국유학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 문화적인 갈등이나 한일 혼혈 어린이들의 언어 전략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cf. 임영언·이화정 2013, 松樹 2020, 川端 2020). 이에 비해, 한국에서의 일본인의 생활 자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cf. 아사다 2009). 특히 2003년 이후의 이른바 한류 붐 이전에 내한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1965년 이후, 많은 재한일본인들이 자기의 한국 생활을 썼던 책을 일본어로 출판했다. 다양한 출판물이 나왔는데, 본 발표에서는 특파원이나 연구자 등이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 쓴 책이 아닌, 유학생이나 주재원의 아내 등이 자신들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한 자전이나 논픽션 6권을 중심으로 검토한다<sup>2)</sup>. 이를 통해, 현재보다도 한국인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이 강했던 당시의 일본인들이 현지의 한국인과의 접촉을 통해 시선의 변화를 경험했음을 지적한다.

### 2. 문헌의 개요

6개 작품의 저자들의 당시의 신분을 크게 나누면, 유학생(히다카, 도다, 츠츠이), 주재원 아내(오노다, 와타나베), 현지채용(나가사와<sup>3)</sup>)이다. 구체적인 출판 연도나 체류 기간은 표와 같다.

표 본 발표에서 언급한 재한일본인들의 책 상세 및 저자들의 체류기간

작가명	출판년	제목 및 출판사명	작가의 한국 체류기간
오노다 미사코	1988	『ワンダーランドソウル』 ちくま文庫	77년1월~79년9월
히다카 유니	1989	『新村スケッチブック』 新宿書房	81년4월~87년10월
나가사와 히로시	1988	『びっくりのんびり韓国暮らし』 草思社	83년~불명
도다 이쿠코	1988	『ふだん着のソウル案内』 昌文社	83년12월~현재
츠츠이 마키코	1991	『ソウルのチョッパリ』 亞紀書房	87년3월~88년6월
와타나베 마유미	1999	『韓国のおばちゃんはいらい!』 昌文社	94년11월~96년10월

※ 순서는 저자의 한국 체류 기간순으로 나열하였음.

- 1) 본 발표에서는 한국에 거주한 재일코리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한일본 출신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한 일본인만을 가리키는 경우는 재한일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 주재원이나 연구자가 쓴 문헌은 黒田(1985 외)나 四方田(1987 외)등 다수 있지만, 시국의 정치를 언급한 내용이나 학술적인 분석을 포함한 부분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한다.
- 3) 다만, 나가사와는 현지 기업에 고문으로 채용되었으며, 신분이나 수입에 관해서는 일본인 주재원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체류기간은 대체적으로 1년부터 3년(히다카는 6년 반)이다. 참고로 도다는 나중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현재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sup>4)</sup>. 그 외의 특징으로서, 츠츠이, 와타나베, 나가사와는 이주하기전에 한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남은 이들은 학창 시절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 한국어 혹은 한국과의 일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각자 신분은 다르지만, 한국에서 장기간 살고 한국인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킨 사례를 보여준다.

### 3. 한국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

#### 3-1. 관계의 다시 파악하기

1910년부터 35년간, 일제는 한반도를 식민지 지배했다. 해방 후 긴 시간 동안 한국에 이동한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지배의 결과로서 이른바 ‘반일’ 감정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활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오노다는 어느날 합승으로 택시를 승차할 때 그녀가 일본인인 것을 눈치챈 운전기사로부터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로 비판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승한 할머니가 “그녀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운전기사를 다그친 덕분에 마지막에는 운전기사와 할머니에게서 “한국에서 즐겁게 보내세요”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sup>5)</sup>. 몇몇 책에는 이러한 한국인과의 풀뿌리에서의 접촉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관계와는 다른 한국인과 일본인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기술이 보인다. 또한 한국인 친구의 “일본이 싫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한국을 알자고 생각해서 유학한 도다는, 같은 학과의 한국인 친구와 공해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을 때 “한국은 아직 늦고 있어서, 거기까지 손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에 위화감을 느꼈다. 동시에 자기가 과거의 침략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돌아보며 복잡한 심정이 됐다. 복수의 책에는 경제적인 우위성을 축으로 한국을 봤던 것에 대한 자성이나 한일의 경제적인 우위성을 두고 복잡한 반응을 하는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 3-2. 일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한국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한국에 대한 우월감이나 무지를 자각하여 일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츠츠이는 경복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일본인 수학여행 학생들이 히노마루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일본인 관광객들의 무지를 한탄하여 일본의 신문에 투서를 했다<sup>6)</sup>. 또한 나가사와는 출장으로 온 일본인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하룻밤만 이 아니라 아침 식사, 게다가 통역이라고 해서 일의 현장까지 동행시키는 것이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대하여 쓰고 있다<sup>7)</sup>. 기타 히다카는 일본어가 가능한 한국인 여성이라고 오인받아 그 처지를 간접 체험했다. 히다카는 일본 방송국의 통역 겸 리포터를 하면서, 서민적인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했는데, 제작진의 요리는 나왔지만, 본인의 주문이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그 원인이 금전적으로 남성과 교제하는 한국 여성이라고 착각을 받고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한국어를 할수 있는 일본인 여성이라는 발상이 한국인들에는 없었고 (다소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여성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직업에 한정된 것이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나가사와의 예와 같이 일본인 남성의 존재라고 생각되지만, 뜻밖에도 일본인

4) 戸田(2012)

5) 小野田(1988)pp.176-177

6) 아사히신문 1987년11월11일 조간5면 「胸に日の丸で訪韓は無神経」

7) 長澤(1988)pp.66-67

여성인 히다카는 한국인 여성이 아닌 것을 반론하지 못하고, 복잡한 심경을 느낀 적이 있었다<sup>8)</sup>. 이와 같은 사례는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식민주의적인 감각이나 몰이해, 또한 그 결과로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한국인 여성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이 시대에는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3-3. 자신의 무자각에 대한 반성

상술한 도다의 유학 동기는 본인의 한국에 대한 무자각이 계기였지만, 실제로 한국에 살면서 자신의 무자각을 알게 되는 사례도 보인다. 와타나베는 기자인 남편과 자식과 함께, 리틀 도쿄가 아닌 서민적인 동네에 살고 싶다는 이유로 서울 서교동의 아파트에 살기로 했다. 그 아파트의 주인은 90년대 전반에 60대였던 일본어가 능통한 여성이었다. 가족이 이사한 후 어느 해의 삼일절에, 일본의 히나마츠리(3월3일)가 가까운 것도 있어서, 아파트 주인 여성에게 “아실 것 같지만”이라고 하면서 히나 인형을보여 줄 기회가 있었다. 그러자 주인은 그녀는 기억 착각으로 국민학교에서 매일 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와타나베는 바로 사과하는 것도 무신경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말을 할 수 없었고 “이것 좀 봐요, 어릴 적 그대로의 마음이 됐네”라는 말에 압도당할 뿐이었다<sup>9)</sup>.

## 4. 고찰

이와 같이 70년대 후반부터 서울올림픽 전후까지의 사례에서는 그들이 한국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거리에 대한 생각이나 식문화의 차이만 아니라, 양국(의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이미지나 무자각, 오리엔탈리즘적인 이해에 접근하고, 이전까지 본인이 가졌던 “시선”을 자성하여, 한국인 혹은 일본인에 대한 시선을 변화시키며, 이를 통하여 한일의 역사적인 관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펼치는 자세가 보인다.

발표자는 이러한 태도나 시선의 변화가 서울 올림픽 이후, 특히 한국에 대한 정보가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2003년 한류 붐 이후에 내한한 일본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를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우월하다거나 사회 경제의 성숙도가 어느 쪽이 더 진행되었는가 보다, 한류 붐을 통한 문화적인 이미지나 정치적인 한일관계에 의거한 이미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재한생활을 주제로 하는 책은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쯤부터 ‘혐한’을 주제로 하는 책이 일본 서점가를 석권하게 되었다. 하지만 요 몇 년 동안에 이른바 ‘혐한 책’은 감소하고 한국 예능이나 문화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것은 일본 내에서 원하고 있는 한국 정보의 질이 변화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개개인의 한국 생활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발신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상반되는 고정관념도 창조되고 있다<sup>10)</sup>. 발표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류 붐 이후에 내한한 재한일본인 출신자 40명 이상에 대하여 이주 동기나 이주 후의 생활에 관한 라이프 스토리의 인터뷰 조사를 했으며 향후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후의 재한일본인의 생활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검토하고 싶다.

8) 日高(1989)pp.201-202

9) 渡邊(1999)pp.78-81

10) 발표자의 인터뷰에서도 카카오톡의 “재한일본인 육아 그룹”단톡방의 존재나, 일본어 한국 정보 사이트 “KONEST” 게시관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말을 받았다.

## 참고문헌(표에 기재한 문헌제외)

### 【일본어 문헌】

- エドワード・サイード(1993)『オリエンタリズム』上下巻、板垣雄三・杉田英明監修、今澤紀子譯、平凡社  
川端浩平(2020)『排外主義と在日コリアン—互いを「バカ」と呼び合うまえに—』晃洋書房  
黒田勝弘(1983)『韓國社會をみつめて 似て非なるもの』亞紀書房  
戸田郁子(2012)『悩ましくて愛しいソウル大家族』講談社  
松樹亮子(2020)「在韓日本人の韓國文化受容意識と行動選擇に關する一考察—インタビュー調査から—」  
『日本文化學報』第85輯、pp.193-219  
四方田犬彦(1987)『われらが「他者」なる韓國』PARCO出版局

### 【한국어 문헌】

- 아사다 에미 (2009)『재한일본인 주재원 커뮤니티연구: ‘리틀도쿄’에 거주하는 부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임영언·이화정(2013)「한국거주 일본인의 문화적응 모형과 다문화적 수용태도 연구」『평화학연구』제14권  
4호, pp.187-206